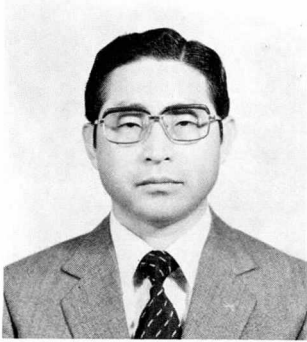


인 사 말



우리나라는 바야흐로 새 時代의 章을 펼치는 前進隊列에서 政府와 國民의 和合된 努力이 날을 더할수록 무르익어 가고 있고, 지난 날 피와 땀으로 이룩해 온 經濟成長을 바탕으로 第2의 經濟跳躍을 成就하기 위해 힘찬 前進를 계속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時代的 轉換點에서 본 韓國機械研究所가 우리나라 工業의 根幹이 되는 機械·金屬·造船 分野의 技術開發과 當面課題의 解決이라는 막중한 使命을 가지고 새 출발한 지도 벌써 반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.

본 연구소는 이번의 統合을 心機一轉의 기회로 삼아 그동안 본 연구소가 키워 온 技術力量을 다시 한번 가다듬으면서 우리 機械工業分野에 散在해 있는 問題點들을 하나 하나 研究·檢討하여 그 解決策을 마련함으로써 業界에 미치고 있는 不況의 打開는 물론 工業化를 誘導하는 觸媒의 役割을 담당해 나갈 決意를 새로이 다졌습니다.

이러한 決意 아래서 본 연구소는 앞으로 技術의 開發과 向上을 위한 업계 여러분과의 좀더 밀접한 紐帶와 긴밀한 協力을 도모하고자 하며, 본 연구소가 發刊하는 國文月刊誌인 工業技術과 英文月刊誌인 Machinery Korea 등 技術專門誌의 發刊·普及事業을 이와 같은 協力方案의 하나로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.

한편 본 연구소에서는 종전 船舶研究所에서 발행해 왔던 韓國船舶研究所 所報를 '韓國機械研究所 所報'로 題號를 바꾸어 계속 발행, 제공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. 이 所報에는 船舶分野뿐만 아니라 機械·金屬分野까지 年間 본 연구소 研究員들이 研究業務遂行을 통해 얻는 귀중한 成果들 가운데서 選別, 年2회로 나누어 발간케 될 것입니다.

원고의 種別은 주로 새로운 기술개발 내용(技術報告)이나 特定分野技術, 또는 新技術에 대한 해설문(技術解說)으로 業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쉽게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.

본 '韓國機械研究所 所報'가 업계의 生産活動이나 技術向上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을 바라며, 앞으로도 아낌없는 指導와 叱正을 바라마지 않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1981年 7月

韓國機械研究所 所長
工学博士

박
충
경